

해양수산부 2차 종합물류기업 11개업체 선정

천경해운, 흥아종합물류 등 단독/제휴기업군

해양수산부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물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11개의 물류업체를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단독기업으로 국제통운(주), (주)대한송유관공사, 동부건설(주) 등 3개 업체이며, 전략적 제휴기업군은 세방, 영진공사, 유성 CLAKO, 천경해운, 흥아종합물류, CJ GLS, KICC, KIFT 등이다.

이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은 지난 6월12일 1차 인증업체 10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21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종합물류기업은 1차 발표 후 심사가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선정된 기업 중 전략적 제휴 기업군이 73%를 차지해 물류기업간 연계를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상운송기업의 경우에는 1차 발표에서는 2개 기업만이 포함되었으나, 2차 발표에서는 3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물류에 특화된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성장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인증업체들은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이뤄졌으며, 심사단의 심사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류업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가 시행 첫해에 21개 인증업체를 발굴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이번 2차 인증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증신청 접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인증된 종합물류기업이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등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부산항 신항 2-4 컨부두 민자사업 시행 공고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를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제안요청을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가덕도 신항 북측 해역 일원에 5만톤급 3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부두 1050m, 부지 63만㎡를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제안자는 무상사용기간을 30년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추정 총사업비 5740억원을 초과 제시하면 감점 처리되고 정부재정지원 요구금액을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용료는 1TEU당 8만1042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운영수입보장이 없고 재정지원요구금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정부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항 신항은 총 30개 선석개발 계획 중 25개가 운영돼 부산항은 총 46개 컨테이너 전용 선석을 확보하게 된다.